

도량 있는 선비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채 계류(繫留)되어 있는 교회문제 중의 하나로 소위 성직자로서 목회자의 세제(稅制)문제를 들먹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이 문제를 접할 때면, 통상 상식과 감정의 의지하여 목회자가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한지 그렇지 않은 지를 재단하기 십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 경우를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곧 이하 풀어가겠지만 목회자가 세금을 내고 안내고 하는 것이 누구의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마땅한지의 시각에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목회자의 납세문제를 바로 보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사자로서 목회자 자신은 물론이고 교회와 또한 징수자로서의 국가 간에 첨예한 이해와 고민이 결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아 지금까지 이곳저곳에서 무익한 탁상공론만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은 상황에서는 목회자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세금을 내야 된다고 단순히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최저생계비의 보존이나 국민보험(연금, 의료, 고용, 산재보험 등) 등에 대한 국가의 막대한 부담을 고려하면 그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목회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에 치우치게 되면, 사회법은 차치하고서라도 작금의 교회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사회통념에 반하게 되는 우(愚)도 간과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목회자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어찌면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십일조에 관한 것이 그것입니다. 곧 다달이 우리의 소득급여 중에서 과세이전의 총수입금액으로 십일조를 떼어야 하는지, 아니면 과세이후 실질수령금액으로 떼어야 하는지의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니 그보다는 어떻게 해결하여야 이후로의 설왕설래(說往說來)의 무익한 변론(辯論)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목회자의 납세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전자)들의 사회법적 근거는 통상 헌법 제38조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소위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와 과세형평원칙(課稅衡平原則)을 기치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후자)들은 교회헌금은 기부금일 뿐만 아니라 종교법인에 대한 면세규정과 현행 국세법상 목회자에 대한 납세의무규정을 뒤적여볼 때 어디에도 납세의무를 부가하고 있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전자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교회헌금으로부터 비롯된 목회자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고 폭넓은 사회봉사활동으로 보아 사례금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논리도 덧붙여 두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 우리나라에서 목회자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한다면 목회자에게도 앞서 본 국민보험혜택을 국가가 보장하여야 하며, 전체 목회자 대비 기본생활비(4인 기준 170만원 정도)에도 못 미치고 있는 80% 이상의 목회자 수입을 고려할 때, 국가는 최저생계비(마찬가지로 120만원)를 기준한 생계비 또한 보존해 주어야 할 것이라며 전자에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전자의 시각에 힘을 싣고자 의도하고 있는 사회일각의 견해도 존재합니다. 좀 지난 최근에 공중파 TV에서는 이 문제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빙산의 일각이냐마 목회자의 현재 생활상태(수준)를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곧 시가 3억 원에 달하는 외제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대형교회의 목사, 골프연습장이 달려 딸려 있는 고급빌라에 살고 있는 목회자,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는 목회자들의 실상을 집중 조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목회자들의 수입이 얼마나 되고 그 또한 어디서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적보도 하였는데, 일례로 골프연습장이 딸려있는 고급빌라에 살고 있는 한 목회자의 연봉이 자그마치 12억 원에 육박한다는 사례 또한 적시해 두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씁쓸한 사실은 이 기사 보도 이후 소위 한국의 기독교를 대표한다는 몇몇 단체에서는 공문을 보내 이 같은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유는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 차제에 있습니다.

한편 목회자의 납세문제는 비단 소득세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재산세에 관련한 것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낱낱을 여기서 시시콜콜히 따져보는 것은 무익할 것으로 여겨 생략하기로 하고, 다만 우리

실정법상의 처지를 몇 가지 판례를 참조하여 이에 대신해 두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교회 담임목사의 사택은 비과세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판결 1983.12.07. 83누298). 취지는 담임목사의 주택은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택이 교회의 경내에 있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없다고 하여 마찬가지로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교역자(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등)의 사택은 교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고는 볼 수 없다고 보아, 이들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은 일체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곧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교회 사찰의 사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외국(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외국의 목회자들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공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형편은 우리와는 사뭇 다릅니다. 곧 이들은 퇴직 후에 각종의 연금혜택과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일반인과 다름없이 수혜하고 있다는 시각에서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의 처지를 우리와 동일한 선상에 놓고 꽤다 맞춰 내야 된다는 식으로 재단하는 것은 일견 형평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전자에도 후자에도 속해 있지 않은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위에서와 같은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성직자들이 납세의 의무를 지는 대신에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나 연금혜택 등을 수혜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기를 잘 조정하여야 할 것을 조건에 두고 양자의 타협을 모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요? 우선 지금의 목회자들이 구약시대에 레위지파에 해당한다고 보아 본장 말머리에서 제시한 민수기의 기록(17-18)을 통해 이하 면면을 찬찬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고라당의 반역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에게 주신 특권을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명확히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7장은 이를 다루고 있는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구약성경에서 레위지파의 특권을 확인하고 있는 마지막 기록이 되는데(민 16:01-35, 36-50, 17), 내용은 어느 지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지 밝히 보여주시고 계신 것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본 기록에 비추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각의 지팡이를 취하게 하시고 거기에 각 족장의 이름을 쓰게 하셨습니다. 다만 레위의 지팡이에는 대제사장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하셨습니다(이유는 이스라엘 중에서 레위지파를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시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한 지파의 지팡이에는 싹이 자랄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모두의 지팡이를 장막 안 증거궤(證據櫃) 앞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 증표로서 앞으로 고라당과 같은 반역을 그치게 하시겠다고 덧붙여 두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대로 모든 지팡이들을 증거궤 앞에 두고 다음 날

그곳에 들어갔을 때, 레위지파의 지팡이, 곧 아론의 이름이 적힌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열매가 열리게 되는 이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는 싹이 돋은 아론의 지팡이를 포함하여 나머지 지팡이 모두를 온 이스라엘에게 보이고 이에 레위지파를 구별하여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로 앞으로 다시 되가져다 놓고, 그곳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증표로 삼을 것임을 선언하게 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은 그들을 대신해서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사람이 필요함을 다시금 확실히 깨닫게 되었고 그 결과 제사장 직분이 사람이 어찌해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특권이었음을 명명백백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명확히 하시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공식적인 의무에 관한 규례를 분명히 확정해 두셨습니다. 이유는 자주 동요하고 혼란에 빠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명확히 깨닫게 하시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레위지파의 공식적인 의무와 레위지파의 의무이행에 따른 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규례는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십일조에 관한 내용만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닌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레위지파의 소득에 관하여 주목하여야 할 것은 십일조에 관한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주셨습니다. 본래 십일조에 관한 규례는 신명기의 기록이 가장 오래된 것이고(신 14:22-29), 그것이 이어져 레위인을 포함하여 나그네와 고아나 과부

등에게도 주라고 명하신 레위기의 기록(레 27:30-33) 그리고 본장에서
의 기록이(24)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이스라엘의 십일조는
레위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레위지와 또한 그들 소득의 십일
조를 성별하여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신약에 이르러서는 상황이 구약과는 다르게 전개됩니다. 당시 교활
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말씀을 꼬투리 잡고자 세금을 빌미삼아
예수님을 시험하기에 이릅니다.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울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
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마
22:17-22, 막 12:13-17)

여기서 교활했던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의
압제자로서 군림하고 있었던 로마의 가이사(Caesar)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느냐며 따질 요량이었고, 달리 예수님께서 바치지 말라고 이르시면,
로마에게 고발하여 예수님을 궁지에 몰고자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저도 아니게 아무 말씀도 아니 하시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고 따지면서 되레 그것도 모른다고 조롱하려는 그들의 검은 속내를 감춰두고 있었습니다. 그들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시든 자신들의 꾀에 틀림없이 걸려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그들 바리새인들과 수하(手下)들의 속내를 보시고 이를 통렬히 질타하시면서 유명한 명언으로서 ‘가이사(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씀을 남겨 주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쉽게 보아 ‘세금은 세금대로, 예물은 예물대로’라는 말씀으로 바로 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선 화제로 돌아가 그렇다면 목회자의 납세문제에 관하여 신구약은 일정한 함수관계를 갖고 우리에게 해결책을 암시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먼저 구약에서 레위지파의 소득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각출(釀出)에 의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각출된 것의 본질은 하나님께 바친 십일조로서 재물이 아니라 예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레위인이 이스라엘로부터 취한 십일조에서 일정부분을 따로 떼어내어 이스라엘의 공익을 위해 또 다시 세금으로 바쳤다면 이는 어불성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 또 다시 사람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신약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가이사(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가이사(가이사)의 것) 따로 (하나님의 것) 따로’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또 다시 떼어 내어 가이사에게 바친다면 이 또한 어불성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이중과세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구약을 종합할 때, 목회자(레위지파)는 소득에 관한 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소득을 따로(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서) 따로(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구분하여 이미 드렸거나 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가는 목회자에게 세금을 내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처지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신앙적인 시각에서 말입니다.

신구약성경의 기록에 비추어, 그렇다면 목회자의 납세에 관한 작금의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필자가 앞에서 언급한 대로 누구의 시각에서 이 같은 문제를 바로 보아야 하느냐에 대한 실타래는 엉킨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실타래를 풀기 전에 잠깐 시선을 밖으로 돌려 보겠습니다.

생각하기에 성당의 신부나 사찰의 승려들의 사례비는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되는지를 묻는 것이 타 종교 간에 있어서 예의가 아니라면 말을 바꾸어 용처(用處)는 대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그들에게 집이 있나요? 자식이 있나요? 그렇다고 땅 한 평 소유하고 있나요? 기껏해야 필요한 것이 그도 술값이나 담뱃값 또는 책값 뭐 이런저런 사소한 것들에 있지 않을까요? 그들에게 억만금을 준다고 한들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용처가 몇 가지나 또한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지면에서 이를 시시콜콜히 따지고 들기에 너무 유치하다고 보아 논제의 범위 내에서 또 다시 화제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저 심오한 불교세계의 그것도 한평생을 두고 참선(參禪)에 임하고 있는

수행자들의 고행(苦行)을 떠올려 보세요.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장좌불와(長坐不臥, 눕지 않고 앉아서 하는 수행)나, 면벽좌선(面壁坐禪, 벽을 보며 수행하는 것), 묵언수행(默言修行), 하안거(夏安居), 동안거(冬安居) 등은 말할 것도 없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때로는 후미진 음산한 동굴에 좌정하여 참선에 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떠올려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수도원에서 때로는 묵언으로, 때로는 말씀을 상고하며, 때로는 노동으로, 그들 하루를 빈틈없이 쪼개어 수행의 길에 임하고 있는 신부나 수녀들의 수행을 떠올려 볼 때,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몇 달씩 수십 수백리 길을 오체투지(五體投地, 양 무릎과 팔꿈치 그리고 이마 등 신체의 다섯 부분을 땅에 닿게 하는 절의 예법)의 예(禮)로 삼보일배(三步一拜)의 순례를 마다하지 않고 있는 라마교(티벳 불교의 속칭, Lamaism)의 피에 버무려진 인고의 길은 둘째치더라도 그 길의 한 중심에 서있는 라마승의 고행 길을 떠올려 볼 때, 이참엔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보다 신이 더 많은 나라라고 하는 인도에서 나뭇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 또는 그들 경전의 가르침에 따라, 때로는 온몸을 혹사시켜가며, 때로는 짓눌러가며, 우리가 보기에 괴롭고 처량하기 그지없는 고행 길을 마다하지 않고 지쳐가고 있는 수행자들의 모습을 지켜볼 때, 또 다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바로보기에 그들이 이 같은 수행에 임하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니 그들이 이러한 수행을 통하여 그토록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시가 3억 원에 달하는 고급승용차일까요? 고급빌라일까요?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전원주택일까요? 12억 원에 육박하는 연봉일까요? 이도저도 아니면 이 같은 수행에 임하고 있는 그들에 대한 보도자체

요청공문일까요?

또 다시 보기에, 여기에 비하면 우리 목회자의 필요는 명목이 상세하고도 분명합니다. 상여금을 포함한 사례비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목회비, 교회 법인카드에 의한 대외협력비, 유학비(해외체류비, 왕복항공료, 과외교육비 등)를 포함한 일체의 자녀학자금, 생활비 및 품위유지비, 차량구입비, 의료비, 사택유지관리비 등이 그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사례비는 이중 한 가지 항목에 불과합니다. 목회자의 시각에서 이러한 세목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묻는 것이 목회자를 향한 모욕이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라면 더 이상의 거론은 지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결단코 침묵할 수 없는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행은 어디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장좌불와로 하십니까? 오체투지의 예로 하십니까? 묵언수행으로 하십니까? 면벽좌선이나 온몸의 고행으로 하십니까? 소망 없는 그들의 모든 고행을 한갓 헛되고 헛된 몸부림이라고 치부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도대체 레위기파로서의 영역(靈域)은 어디서 어떻게 확보해 두시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과 영역은 따로따로의 것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또한 목회자를 향한 모욕이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라면 또 다시 이 질문은 덮어두기로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침묵할 수 없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행은 얼마만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알기로 그다지 시간이 나질 않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보세요. 예배를 위한 각양의 설교준비는 물론이고, 심방도 해야 하고, 주일학교 인도도 해야 하고, 교회의 제반

행정업무도 놓칠 수 없는 일이고, 경조사를 포함하여 전도와 봉사 등등 공식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업무만도 한두 가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금요일예배, 철야기도, 새벽기도, 부흥회, 특별집회, 선교예배, 헌신예배, 찬양집회, 노방전도, 해외선교, 연합대성회, 노회, 총회 등등. 어디 이 뿐입니까? 자녀도 양육하여야지, 일가붙이도 돌보아야지, 사회생활도 어김없이 지켜가야지, 도대체 그 깊은 영성과 엄숙한 신앙의 세계는 언제 맛보고 꾸려가고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위 유명세를 타고 있는 목회자라면 이는 더 이상 이야기할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 왜 이지경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 같은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자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목회자의 교만(驕慢)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다 정확히는 교회를 목회자의 소유로 보아 보다 크게 만들어나가기 위한 마음을 앞세워 두고 있는 까닭에 그렇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곧 여리고성보다도 더 큰 교회, 교회이름을 앞세우는 것보다 차라리 목회자 이름을 앞세우는 것이 보다 이해가 빠른 교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순서를 정하기 위해 번호표를 뽑아야할 정도로 큰 교회를 만들었거나 만들고자 하는 목회자의 교만과 헛된 탐욕에서 비롯된 소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목회자가 바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숨어 있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고라는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로부터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게 반역의 기치를 든 것은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탐욕은 가나안에 있었고 그곳은 그들에게 재물의 보고(寶庫)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라당이 음부에 빠진 결정적 동인(動因)은 ‘지위’, ‘명예’ 그리고 재물을 향한 ‘탐욕’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지파로서 레위인에게 주신 특권은 제사(지금으로 이야기 하면 예배)의 집전과 이스라엘로부터 각출된 십일조에 관련된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각출된 십일조의 취급)에도 레위인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십일조 및 각양의 재물을 봉헌하여야 했으며(레 18:25-32), 이에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에 비하여 봉헌에 따른 절차와 형식이 보다 까다롭게 요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주신 특권은 이스라엘 앞에 그들의 지위를 구별하는 특권이 아니었고,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 그들이 지켜야 할 추상같은 의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목회자의 수입(사레비)은 하나님의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보다 정확히 되짚어 두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목회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떨리는 마음을 앞세워 가장 최소한의 필요한 것만을 필요한 때마다 정확하게 이야기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두려운 마음을 앞세워서 말입니다. 이에 우리는 비록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 가족 또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뒤처짐 없이 돌보고 기쁨으로 살피겠습니다.

이 같은 뜻 깊은 행실을 우리에게 비추어 부디 저 깊고 깊은 영성의 도상에서 ‘스스로 계신 이’(I AM WHO I AM, *ehyeh asher ehyeh*, **אֶהְיֶה אֲשֶׁר אֶהְיֶה**)의

말씀을 따라 그 손에 이끌려 듣고 깨달았던 낯낯의 것을 우리에게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경건한 예배의 집전). 이로부터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목회자로서 또한 이 세상 앞에 ‘도량 있는 선비(목회자)’로서 어디서나 극진한 존경을 한 몸에 변함없이 받을 수 있었으면 하고 기대합니다. 필자는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로서 목회자에게 허락하신 사명이자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설왕설래의 납세문제는 지금까지의 무익한 시각에서 가 아닌 새로운 시각에서 해결되었을 것이라 봅니다. 곧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기준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외람되나마 필자의 생각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척박한 골고다의 구렁을 지쳐 가신 예수님을 본받아 속죄하는 마음으로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낌없이 세상 앞에 내어 놓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진자). 속죄하는 마음을 담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사업으로 영광을 나타내겠다는 결연한 의지에 용처를 두고 말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우리 신앙의 열조로서 다윗의 고백이 오늘밤 필자 또한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자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며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며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대상 29:13-19)